

포스트- 탁신 시대의 ‘붉은셔츠’:

이념 · 조직 · 행동*

박 은 흥**

I. 머리말

‘붉은셔츠’는 2010년 4-5월 폭발적인 대중적 저항을 조직해냄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아피셋 민주당 정부는 상원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요구를 모두 일축하고 방콕시내 중앙부를 장악하였던 ‘붉은셔츠’를 유혈 진압했다. 이들은 붉은셔츠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선전전을 계속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이던 지식인들을 포함해 표적으로 삼은 인물들에 대한 수색과 체포를 불사했다.¹⁾

2010년 당시 붉은셔츠의 요구는 조기 총선 실시였다. 당시 이들의 집단행동은 전통에 대한 근대의 저항,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민주주의의 저항, 도시-중산층 동맹에 대한 농촌-빈민층 동맹의 저항 등으로 해석되었다. 2010년에 있었던 이들의 이러한 대대적인 저항은 2011년 총선에서 친탁신계 프어타이당의 압승과 잉락정부

*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한국동남아학회의 2011년도 한-아세안 학술교류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ehpark@skhu.ac.kr).

1) 대표적인 예로 쫄라롱껀대학 역사학과와 수타차이 교수와 노동운동가 솜웃이 비상 사태 포고령 위반혐의로 체포되었다.

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결실을 거두었다.²⁾

붉은셔츠의 태동 배경은 2006년 9월 19일 쿠데타이다. 붉은색은 2007년에 군정 하에서 만들어진 신헌법을 거부하는 운동과정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붉은셔츠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급격하게 확장하게 된 계기는 2010년 4-5월 대투쟁이었다. 이때 붉은셔츠의 반정부투쟁은 기존 노란셔츠 지지자들의 일부를 붉은셔츠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었다. 특히 탁신의 도덕성에 실망하고 등을 돌렸던 일부 청년층들이 노란셔츠에서 붉은셔츠가 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붉은셔츠의 요구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간명했다. 그것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출범한 아피셋 민주당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요구였다.³⁾ 그렇지만 선거에 자신이 없는 아피셋 정부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침내 붉은셔츠의 저항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아피셋 수상이 타협책으로 같은 해 11월 14일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시위대 지도부가 강-온파로 나뉘고 이들이 이끄는 시위대와 공권력간의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표된 아피셋 정부의 타협안은 붉은셔츠로부터 이렇다할 신뢰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아피셋 정부는 시위대를 군주제를 무너뜨리려는 불온세력으로 몰아갔고 마침내 군까지 동원하여 유혈진압을 강행하였다.

방콕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그러나 이때의 ‘평화’는 강제진압과 비상사태령이라는 물리적 힘으로 되찾은 평화였다. 정국 수습에 나

2) 2011년 7월 총선에서 프어타이당은 500개 의석 중 264석(약 53%)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아피셋 수상이 이끄는 민주당은 160석을 얻는데 그쳤다.

3) 2008년 12월 2일 타이 헌법재판소는 노란셔츠가 수완나폼 국제공항을 점거하고 있던 와중에 당시 집권당인 팔랑쁘라차촌당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들어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때 팔랑쁘라차촌당의 내원 그룹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붉은셔츠는 민주당정부를 군부, 노란셔츠, 사법부, 민주당 등의 음모하에 이루어진 정당성 없는 정부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선 아피셋 수상은 유혈진압을 반테러작전으로 정당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국민화해, 즉 '쁘렁당'(พรรคพลัง)을 위한 '진상규명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였다.⁴⁾

그렇지만 주목할 것은 붉은셔츠가 2010년 4-5월 저항국면에서 그리고 그 직후에도 아피셋 민주당 정부에 대한 저항을 전근대 삭디나 시기의 귀족 혹은 관료를 뜻하는 '암맛'(อำมาตย์)에 대한 평민 혹은 농노를 뜻하는 '프라이'(ไพร)의 저항으로 비유하였다는 점이다 (Pasuk and Baker 2012: 225). 이는 암묵적으로 민주당세력의 집권을 왕실과 군부를 후원세력으로 하는 전통적인 과두계급에 비유한 것이다. 특히 붉은셔츠는 왕실과 군 간의 유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뿌렘 추밀원 의장을 2006년 쿠데타의 배후조정자로 규정하고 그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선 바, 이것은 왕실 주도의 국가이데올로기, 즉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국가, 종교, 국왕' 삼위일체에 대한 충성을 '쿤나탐'(คุณธรรม), 즉 도덕과 연관시키는 보수정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최초 도전이었다.

이 글은 자본주의를 물질적 토대로 하면서도 국가,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에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두는 '혼종적 암맛'(hybrid ammart)이 오랜 기간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의미하는 헤게모니적 지배를 하고 있었으나 2010년 이후 헤게모니 위기를 겪기 시작하였음을 전제로, 이러한 위기를 이끌어낸 붉은셔츠의 이념, 조직, 행동을 '근대화된 프라이'(modernized phrai)⁵⁾의 대항 헤게모니

4) 2010년 4월 10일 당시 아피셋 수상의 명령 하에 시위대 진압이 시작되면서 19명의 시위대원, 6명의 군인, 1명의 일본인 기자가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 무렵부터 '붉은셔츠'를 이끈 <반독재민주주의연합전선(너빠쳐, UDD)> 지도자가 체포되면서 시위가 종결되는 2010년 5월 19일까지 2개월 가량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혈사태의 후유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설치된 <진상규명과 화해위원회>는 2010년 7월 17일부터 2012년 7월 16일까지 2년을 활동기간으로 한 국가-시민사회 협력기구로 6명의 자문위원을 두었다.

5) 이 논문의 '근대화된 프라이'라는 개념은 붉은셔츠는 곧 빈민층이라는 시각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신)중간계층이 참여한 붉은셔츠 혹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한 '포스트-농

(counter-hegemony)의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⁶⁾

II. 분석틀 모색을 위한 이론적 논의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험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 매우 유용하다. 첫째, 그람시는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를 실현해내기 위해 상호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는 시민사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이를 지배하려 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시민사회부문이 국가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시민사회 부문은 적대적이고 다른 일부 시민사회부문은 우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시민사회를 경쟁적 장으로 보고 있다. 시민사회를 지배하려는 모든 세력은 지배를 위한 동의구조를 만들어내려고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넷째, 시민사회는 국가가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이념간 경쟁과 갈등의 장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 차이로 인해 반국가세력이 출몰하는 것이 차단될 수 없다는 것이다(Ramasamy 2004: 203).

주지하다시피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제의식은 자본주의의 전일화 과정을 밝고 있는 서구에서 기대와는 달리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

업사회' 등과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한 Walker(2010), Naruemon and McCargo(2010), Somchai(2011), Montesano et al.(2012) 등에서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솜차이(Somchai) 교수는 이들 시각들이 민주화의 전제조건으로 중간계층의 형성을 내세우는 근대화론에 경도되는 것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타이 이싼(동북부) 지역의 붉은 셔츠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 중간층, 빈곤층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담일: 2012년 11월 16일).

6)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왕모독죄 위반사례는 연 4-5회에 불과했는데 2006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국왕모독죄 위반사례가 400건에 이른 것도 대항해게모니 형성의 초기적 징후로 볼 수 있다. 국왕모독죄 위반사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ikipedia의 Lèse majesté in Thailand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있었다. 그의 결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갖고 시민사회 영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규범을 노동자계급에게 주입시키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좌파들이 자본가들의 선전전에 적절히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민사회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람시는 자유주의 이론과는 달리 시민사회를 국가에 대항하는 영역으로 보지 않고 이념들 간의 경합, 갈등, 충돌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영역으로 파악했다. 지배계급이 시민사회를 통제한다는 것은 대중들 사이에서 동의(consent), 협력(cooperation), 공조(collaboration)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도록 가치를 주입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통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그람시가 의미하는 헤게모니(hegemony)이다. 이로써 '강압적 국가'는 '윤리적 국가'로 자기 확장을 하게 된다(이내영 1986: 48; 조희연 2010: 185; Alagappa 2004: 29; Ramasamy 2004: 202). 이때 지배계급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s)은 자본주의 발전에 적합하게 사회를 조직해낸다. 그러기에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혁명 전략은 국가권력의 급격한 장악보다 시민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노동계급은 인민의 정치의식에 대한 지적·도덕적 개혁을 수행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유기적 지식인을 창출해야 하고, 이것이 혁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내영 1986: 64), '헤게모니의 균열'(조희연 2010: 343-345)에 이르는 전략이 된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국가 지배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모든 국가 지배는

강제와 동의, 폭력과 설득의 양자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여기에서 헤게모니는 힘의 수단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도력에 기초한 동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즉, 그의 헤게모니 개념은 한 사회계급이 자신의 세계관을 확산하고 대중화함으로써 동의를 획득하여,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도력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람시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헤게모니에 의한 지배와 강제력에 의한 지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헤게모니에 의한 지배가 보다 정상적인 상황이고, 힘과 강제력은 위기 시에만 행사된다고 본다. 그는 또한 헤게모니 지배를 통해서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계급은 노동자 계급의식의 형성을 저지하여 심화되는 위기 속에서도 지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헤게모니 지배가 계속되는 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이내영 1986: 44). 그러기에 대항 헤게모니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세계개념(the conception of the world), 상식개념(the conception of commonsense)을 창출해야 한다(이현미 1986: 88). 그러기에 이때의 혁명은 기동전이 아닌 진지전일 수밖에 없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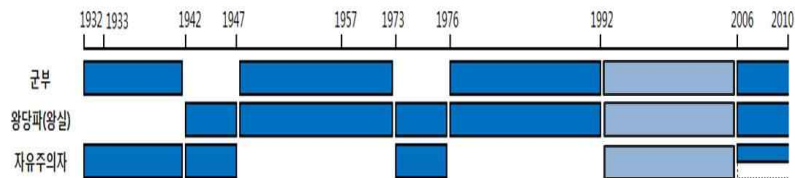
이렇듯 그람시가 자본주의를 물질적 토대로 하는 서구유럽에서 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주목하였다면, 이 논문은 자

7) 그람시에게 통합국가(integral state)란 ‘윤리적 국가’ 또는 ‘교육자로서의 국가’를 가리킨다. 국가의 헤게모니 행사란 인민대중의 적극적 동의를 조직해내는 것의 일환으로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혁명의 한 쫓라롱건대 재학생은 타이 역사교과서는 왕조사만을 다룬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면담일: 2012년 9월 13일). 기존 질서에 기여하는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타이정치학회장 수봉 방콕대 교수는 방콕 시내에서 친탁신 반(反)아피셋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던 시점인 2010년 3월 조인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탁신 전(前) 수상의 포퓰리즘이고”이라고 하면서 “돈으로 만들어진 시위로 (아피셋) 수상이 사임한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060122&cloc=(검색일: 2012.12.2) 이는 붉은셔츠에 속하는 농민들을 시민의식이 부재한 매수된 동원부대로만 보는 대다수 타이 지식인들의 관점이다.

본주의를 물질적 토대로 하는 타이사회에서 왜 전근대성을 탈각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가에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혼종적 암맛’의 지배방식과 이에 대항하는 ‘근대화된 프라이’의 권력관계에 적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 현 타이 정세에 유효한 분석수단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라마6세 와치랴웃 통치시기에 절대군주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조되었던 ‘국가, 종교, 국왕’ 삼위일체론과 같은 국가주의적 정치문화 매트릭스(political cultural matrix, Schmidt 2011)가 100년 가까이 지나 자본주의가 전일화되고 있는 타이사회에서 어찌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갖고 있는가로부터 출발한다.

<그림 1> 군·왕당파·자유주의자 3자간 명시적 정치권력관계



참고) ■은 적극적 정치적 입장을 취하면서 적극적 연대를 꾀하였던 시기.
 ■은 소극적 정치적 입장을 취하면서 소극적 연대를 꾀하였던 시기.

위의 <그림 1>을 볼 것 같으면 1932년부터 약 10년간 피분을 대표로 하는 군부와 뿌리디를 대표로 하는 자유주의세력간의 동맹이 지속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피분이 추축국에 가담하자 뿌리디는 이와는 정반대로 연합국과 연대하면서 왕실과의 관계 회복을 겨냥한다. 그러나 1947년 쿠데타를 계기로 왕실과 군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러한 관계는 1973년 10월 민주항쟁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10월 항쟁이후 자유주의세력의 급진화로 왕실과 자유주의세력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급기야 1976년 왕실-군부 동맹에 기반한 유혈 쿠데타가 일어난다. 1992년 5월 민주항쟁 이후 군부가 정치전면에서 퇴각함에 따라 군부와 왕실의 관계도 수면 아래로 잠적하고 자유주의세력과 이들 간의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2001년 선거 결과 수상이 된 탁신은 구제도에 도전한다(Pasuk and Baker 2012: 222). 그러자 왕실과 군부의 관계가 재차 강화되고 여기에 일부 반탁신 자유주의세력까지 연대해 전례 없던 왕실-군부-자유주의세력 3자동맹이 형성된다. 이때 왕실-군부 동맹에 합류한 자유주의세력을 이른바 ‘탱크 리버럴’(Tank Liberals)이라고 명명한다(Ji 2007: 30-31). 일부 시민사회세력이 과두제 네트워크에 포섭된 것이다(Pasuk and Baker 2012: 222). 이들 중 일부는 반탁신 정치운동조직인 노란셔츠 지도부의 일원이 되기도 한다. 반면 탁신체제를 몰락시킨 2006년 쿠데타를 계기로 이념적으로 뿌리디의 전통을 잇는 자유주의세력은 이후 왕실-군부-탱크 리버럴 3자동맹과 대립하게 된다. 이들은 노란셔츠와 대치하는 붉은셔츠의 지도부의 일원이 된다.

국왕은 전통적 권력을 상징한다(Schmidt 2011: 323). 여기에서 전통을 상징하는 왕실과 근대를 상징하는 군부가 결합하는, 즉 군부-왕실 동맹으로서의 ‘혼종적 암맛’이 정초되는 1957년 이후 시기에 주목해보자. 1957년 피분정권을 무너뜨린 싸릿 군부는 헌정을 중단시키고 전면적인 정치적 통제에 들어갔다.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노동법을 폐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이와 동시에 싸릿은 왕실 성역화에 몰두하였다. 그는 국왕의 생일(12월 5일)을 아버지의 날로, 왕비의 생일(8월 12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였다. 푸미폰 국왕은 민족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최후의 통치자로 묘사되었다. 이후

타이정치는 신정정치(theocratic politics)에 비유되기도 했다.⁸⁾ 왕당파들은 성역으로서의 왕실이 없을 경우 타이는 붕괴된다고 주장한다(Schmidt 2011: 323-324). 싸릿 시기는 바로 전근대적 왕실의 국가주의와 근대적 군부의 국가주의가 전면적으로 결합하는 시기였다. 중앙행정부는 입법부보다 공정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당화되었다(สุภชาติ 2008: 286).

그러나 군사정권의 도덕성이 추락하면서 시민사회의 도전이 거세지자 왕실은 의회와 손을 잡았다. 1973년 10월 학생들이 주도한 반군부 시위때 푸미폰 국왕은 군출신 수상의 퇴진을 권고하고 과도내각 구성에 관여하는 등 정치안정과 민주주의로의 진전에 균형자 역할을 해냈다.⁹⁾ 물론 이미 이전부터 푸미폰 국왕은 빈곤 지역에서의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만의 지지층을 구축하면서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싸릿과 그의 뒤를 이은 군부 실세인 타넘, 뿌라팻과 조금씩 거리를 두었다. 결국 국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부와 반군부 민주화세력간의 극단적 대치상황에 적절히 개입하여 민주주의와 헌정체제의 옹호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민간정부가 들어서고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공화주의 발상을 하기 시작하자 국왕은 1976년 유혈 쿠데타를 승인하였다. 군부-왕실 동맹의 시각에서 보자면 ‘일탈’에 대한 제재였다.

1976년 10월 6일의 탐마삿대학 유혈진압 사태, 이른바 ‘혹뿔라’ 이후 주요 학생운동 지도자들은 타이공산당의 근거지인 정글로 피신하여 ‘국가, 종교, 국왕’의 삼위일체를 근간으로 하는 ‘깜뻠타이’(ความเป็นไทย), 즉 타이정체성 이데올로기에 공공연하게 도전하였

8) 타이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 역사학자 데이비드 스트레퍼스(David Streckfuss)와의 면담(면담일: 2012년 9월 2일).

9) 1973년 10월 14일을 전후로 해서 국왕은 정치적 대화를 촉구하는 TV 특별성명, 쉐니수상 임명, 3폭군 타넘-뿌라팻-나룽에 대한 용퇴 촉구, 과도의회 의원 임명 등 위기국면의 안정화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다.¹⁰⁾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타이공산당은 베트남 공산정부의 지원 철회, 중국 공산정부의 타이 군사정부와의 제휴로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당시 수상이었고 현재 왕실 최고기구인 추밀원 의장 뽀렘이 구사했던 유화정치공세가 주효했다.¹¹⁾ 또한 타이경제가 신흥공업국 대열에 설 수 있었던 시기도 바로 바로 왕당파의 수장인 뽀렘 집권 시기였다. 1980년대는 뽀렘이 푸미폰 국왕에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헌사할 정도로 군의 수장이자 수상인 뽀렘과 국왕의 관계가 더없이 돈독했던 시기였다(박은홍 2007: 43-44).

1970년대 후반 자유주의세력은 확고한 대중적 기반 없이 타이공산당과 합류하여 군부-왕실 동맹에 대항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뽀리디의 이념을 잇는 자유주의세력의 저항에 군부-왕실 동맹은 한번은 국가폭력을 동원한 강제력의 정치로, 다른 한번은 저항세력에 대한 대사면이라는 동의의 정치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헤게모니 정치 속에서 급진적 성향의 자유주의세력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위축되자 패배를 인정해야 하였다. 물론 이때의 자유주의세력은 군부-왕실 동맹을 정당화한 ‘쁘라차티빠따이뽀타이’(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แบบไทย), 즉 ‘타이식 민주주의’에 저항하면서 1973년 10월 14일 타이 최초의 반군부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이른바 ‘콘드언뜰라’(คนเดือนตุลา), 즉 ‘10월세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2006년 쿠데타 이후 콘드언뜰라를 위시한 일부 자유주의 세력들이 탁신의 정치적 위력을 보여주는 선거민주주의를 비판하면

10) 극우세력이 동원된 ‘혹뜰라’ 사태에는 국왕뿐만 아니라 왕세자, 왕비도 개입되어 있었다. 국왕은 이때의 쿠데타를 국민들이 원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해주었고 자신이 신임하던 대법관 출신의 탄신을 수상에 임명하였다. 탄신은 강경한 반공주의자로서 국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군부와 왕실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김홍구 2010: 65).

11) 뽀렘정부가 타이공산당(CPT)에 행한 정치공세 전략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훈령으로는 투항자의 전력을 불문에 부친 66/2523(1980)이 있었다.

서 타이식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왕당파와의 제휴에 나섰다. 심지어 이들은 친탁신진영의 10월 세대 동료들을 향해 과거 공화주의를 꿈꾸며 군주제를 무너뜨리려 했던 공산주의자들이었다고 비난하는 우익 전략을 불사하였다(Kanokrat 2012: 278). 이들이 앞에서 언급한 탱크 리버털들이다. 이는 암맛 헤게모니가 이른바 1970년대 자유주의세력을 대표하는 일부 콘드엔톨라까지 흡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타이 엔지오들(NGOs)은 세계화로부터의 간극 유지, 반물질주의, 반소비주의 공동체사회로의 회귀를 강조해왔는데, 탁신이 세계화, 근대화,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면서 농촌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운용하자 위기감을 갖게 되면서 암맛과 암묵적으로 정서적 연대를 하게 된다.¹²⁾ 암맛 네트워크의 주변에서 타이 엔지오 역시 암맛 헤게모니의 확장에 기여한 것이다. 불교이념을 토대로 절제·금욕 생활운동을 벌이고 있고 반탁신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 잠령 전 방콕시장의 <싼티 아속>과 같은 불교단체 역시 암맛 헤게모니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직후 국왕이 제시한 지분지족 철학에 입각한 충분경제라는 의미의 '셋타깃 퍼피양'(เศรษฐกิจพอเพียง) 개념은 공동체운동 지향의 타이엔지오와 서구적 가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불교단체들의 정서에 맞아떨어졌다. 주류 언론들의 정치적 편향도 확연하다. 이들은 친탁신계 붉은셔츠와 빈곤층들을 법을 무시하고 교양이 없는 집단으로 묘사한다(Pravit and Jiranan 2010: 162).

반면 친탁신 경향을 보이며 2006년 쿠데타 반대와 2007년 신헌법 불복종 운동을 벌여온 붉은셔츠의 경우 민주주의를 논할 때 타이다움 혹은 '에까락타이'(เอกลักษณ์ไทย), 즉 타이정체성에 호소하지

12) 민간개발협의회(NGO-COD)는 2006년 쿠데타 이후 친탁신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반정부시위를 벌이던 노란셔츠(판타밋)는 옹호하였지만 민주당정부에 반대하는 붉은셔츠에 대해서는 폭력시위 자제를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Ji 2010: 68).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게 노란셔츠 혹은 이들에 우호적인 지식인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전통은 과거 회귀적인 봉건적 삭디나 제도와 관련이 있는 가치체계이다. 붉은셔츠는 현재 역시 삭디나 시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삭디나 시기의 피지배계급이었던 프라이라고 칭한다. 이때의 프라이는 정의가 결핍되어 있고 이중잣대로 차별받는 계급이다. 그러나 이들은 차별에 순종적인 프라이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프라이가 아닌 근대화된 프라이이다.

그람시는 대항 헤게모니 형성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정복과 정치적, 문화적 지도력을 장악하는 진지전을 강조하였다. 이때의 진지전은 장기간의 인내와 창조성을 요구하지만 한번 승리하면 결정적인 것이다. 또한 그람시는 기동전과 진지전의 차이와 연관하여 유기적 위기(organic crisis)와 국면적 위기(conjunctural crisis)를 구분한다. 유기적 위기는 기존의 지배계급이 장기간 치유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와해되고 재구성되는 단계이고, 국면적 위기는 정치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과 군사적 대치를 하는 일시적 위기이다(이내영 1986: 54-59). 타이의 경우 1976년의 흑뿔라와 2012년 4-5월에 랏차쁘라송 거리에서 있었던 유혈사태는 암맛의 국면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다루어질 붉은셔츠의 이념, 조직, 행동은 붉은셔츠의 대항헤게모니의 위력정도와 헤게모니 균열의 강도를 보여줄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논문은 타이 현지에서 붉은셔츠와 관계하고 있는 활동가, 지식인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기에 2차문헌이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보완하는 장점도 있지만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Ⅲ. 붉은셔츠의 이념: 정치적 자유주의

붉은셔츠의 이념은 사회주의에서부터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공통적인 것은 반쿠데타, 헌정주의이다. 이때 헌정주의라는 것은 명실상부한 입헌군주제 혹은 공화주의이다. 붉은셔츠의 최대 조직인 <반독재민주주의연대회의(너빠처, UDD)>는 민주주의와 군주제가 함께 가는 입헌군주제의 완성을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너빠처는 군주제 자체에 도전적인 일부 급진적 성향의 붉은셔츠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는 국왕모독죄 개정운동과 국왕모독죄로 구속되어 있는 붉은셔츠 지도자 혹은 일반 시민들의 방면운동에 소극적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붉은셔츠는 절대군주제에 대한 개혁에 앞장섰던 뿌리디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계승하고 있다.¹³⁾

붉은셔츠는 몇 가지 역사적 사건에 주목하면서 자신들의 현 입헌군주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그들이 현 체제를 ‘암맛따야티빠다이’(อำมาตยาธิปไตย), 즉 관료정 혹은 귀족정으로 보는 이유를 정당화한다. 이때 일부 붉은셔츠에게 탁신은 제2의 뿌리디이다. 뿌리디가 인민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다가 왕당파에게 쿠데타로 쫓겨났듯이 탁신도 그러한 정치적 비극을 맞았다는 것이다.¹⁴⁾

1932년 혁명의 브레인 역할을 하였던 뿌리디는 타이와 같이 저발전된 국가들의 경제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념으로서 사회주

13) 쫄라롱껀대 역사학과 수타차이 교수와의 면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담일: 2013년 1월 10일).

14) 그러나 탁신을 제2의 뿌리디로 생각하는 붉은셔츠의 시각은 탁신을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뿌리디와 탁신의 단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예로 타이남부문제에 대한 양자의 접근방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뿌리디의 경우 남부 무슬림에 대해 연방주의의 관점에서 포용적 접근을 하였다면(Benbourenane 2012: 64-65), 탁신은 배제적 접근을 함으로써 문제를 더 증폭시켰다(Ji 2007: 131-132).

의, 자유주의, 협동주의를 제창하였다. 특히 뿌리디는 기존 경제제도 하에서 노동과 토지가 비경제적으로 사용되는 등 천연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협동사회를 제시하였다. 뿌리디는 자신의 계획이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비추어질까 우려하여 개인 자산에 대한 몰수를 비롯하여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없을 것임을 공표하였다. 설사 토지나 민간 기업에 대한 몰수나 국유화가 있더라도 공산주의적 수탈 방식이 아닌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급진적인 개혁이 아닌 평화적 방식을 통한 민족경제의 구현, 그리고 자산계급에 대한 파괴가 아닌 부자와 빈자간의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뿌리디의 경제 이념이었다(Thawatt 1972: 151; 박은홍 2001: 262-264). 그러나 왕실은 그를 공산주의자 혹은 스탈린으로 몰아부쳤다. 결국 뿌리디체제는 1947년에 일어난 왕당파 쿠데타로 몰락하였다.

요컨대 1932년 입헌혁명에 대한 왕족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일부 보수적인 방콕 신문들을 끌어들이어 입헌혁명의 주역인 카나랏싸던(인민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하거나 러시아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스탈린식 독재로의 이행가능성을 폄하하고 향후 종교탄압에 대한 우려를 보도하도록 했다. 심지어 “우리의 동지인 러시아의 발자취를 따라 싸암소비에트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내용의 팜플렛이 돌기도 하였는데, 이 팜플렛은 혁명 이전 경찰 총장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당파 신문들에게는 활용할만한 기사거리가 되었다. 다른 왕자들은 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내전 가능성을 내비추기까지 하였다(Pasuk and Baker 1995: 253).

일부 붉은셔츠는 1932년 입헌혁명이 1947년 군부 쿠데타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본다.¹⁵⁾ 그래서 카나랏싸던을 재조명하려 한

15) 붉은셔츠의 이데올로그(ideologue) 역할을 하고 있는 탐마삿대학 경제학부 피췌

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왕당파들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 계기가 문민관료층을 대표하면서 1932년 입헌혁명의 주역이자 급진자유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뿌리디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4년 추축국과 협력하였던 피분의 퇴장과 함께 뿌리디는 왕당파와의 협력을 피하였다. 뿌리디는 왕족의 정계 진출과 관직진출을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삭제하였다. 1945년 9월에 뿌리디는 왕족의 한 사람인 쉐니를 귀국시켜 그를 초대하였다. 버워라뎃공을 비롯한 다른 왕당파들도 입국이 허용되었다(Pasuk and Baker 1995: 267).

그렇지만 왕당파들은 여전히 1932-33년 사이에 그가 취했던 이념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불신을 떨칠 수 없었다. 특히 이들은 뿌리디가 연대하고 있던 조직 노동자들, 지방인사들, 급진주의자들과 이들의 사회변혁 강령을 반대하였다. 1946-47년에 왕당파들은 변방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북부지역 군과 군부 내 불만세력들과 연대하였다. 1946년 6월 어린 왕 아난 마히돈이 의문사하게 되자 민주당을 포함한 왕당파들은 이것이 공산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의 소행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배후 인물로 뿌리디를 지목하였다. 그 소문 속에는 뿌리디정부가 반공법을 폐지한다는 것과 방콕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은 마오주의 혁명의 잠재적 지지세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유주의세력을 대표하는 뿌리디에 대한 왕당파들의 반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1947년 11월 8일 일단의 군부세력이 뿌리디가 공화주의 반란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들 군부 세력의 쿠데타 명분 중의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세력에 대한 진압이었고 뿌리디는 공산주의자로 몰렸다(สุภชัย 2007: 90). 이로써 뿌리디는 '승계의 위기'(crisis of succession) 국면에서 다시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교수의 역사관이다(면담일: 2012년 9월7일).

쿠데타 이후 왕당파에 의해 창당된 민주당이 내각을 장악하고 군장성들은 막후 실력자로 남았다.¹⁶⁾ 군부는 와치랏 왕의 존왕주의적 국가주의 독트린을 부활시키듯 ‘국가, 종교, 국왕’에 충성하는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1935년 뿌라차티백 국왕 퇴위 이후 재무부에서 관리하던 왕실 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국왕에게 돌려주었다. 1951년 민주당은 국왕이 상원을 임명하고 군을 직접 통솔하고 입법을 거부하고 장관을 해임하고 법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신헌법을 추진했다(Pasuk and Baker 2009: 142-143; Pasuk and Baker 1995: 281-282). 1957년 쿠데타를 이끈 싸릿은 불교를 믿고 국왕을 타이사회의 구심점으로 여기는 국민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조흥국 2007: 72).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타이 정체성 이데올로기를 확고하게 부활시켰다(Ishii 1986: 163-167). 이때를 계기로 국왕은 암막 위계구조의 정점에 있으면서 타이 공동체 사회의 중심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누리게 되었다. 왕당파들의 영향력도 확대되었다.¹⁷⁾ 이로써 타이 역사학자에게 국왕은 물론이고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용납되지 않게 된다(Terwiel 2005: 320-321).

그러나 붉은셔츠는 1957년 쿠데타보다는 왕당파 쿠데타가 처음으로 성공한 1947년 쿠데타에 더 주목한다. 1947년은 군부-왕실-민주당이라는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암막, 즉 혼종적 암막이 정초된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붉은셔츠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이 이 당시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왕당파에 의해 창당되었고 뿌리디에 적대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현

16)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민주당은 1946년 4월 6일 왕족들의 지지를 받아 창당되었다. 쿠잉 아파이왕이 당수를, 쉐니가 부당수, 크릿이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들은 뿌리디와 반대노선을 취했다(이병도 2000: 38). 민주당은 보수-왕당파의 정파였다(Kobkua 2003: 48) 1946년에 민주당은 어린 국왕인 아난 마히폰의 죽음에 자신들의 정적인 뿌리디 파놓음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Askew 2012: 73).

17) 쫄라롱견대 역사학과 수타차이 교수와의 면담(면담일: 2013년 1월 10일).

재 붉은셔츠의 정치이념과 맞닿아 있는 역사인식이다.

요컨대 붉은셔츠와 노란셔츠간의 대립은 정치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붉은셔츠는 구제도하에서의 신민(subjects)의 지위를 거부하고 근대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시민권을 요구하였다(Nostitz 2011: 1). 탁신체제 하에서 붉은셔츠는 의회민주주의와 선거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음을 자각하였다. 이는 탁신체제가 남겨놓은 중요한 정치적 유산 중의 하나이다.¹⁸⁾ 인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탁신의 재분배정책과 포폴리즘은 왕실 헤게모니에 위협이 되었다(Schmidt 2011: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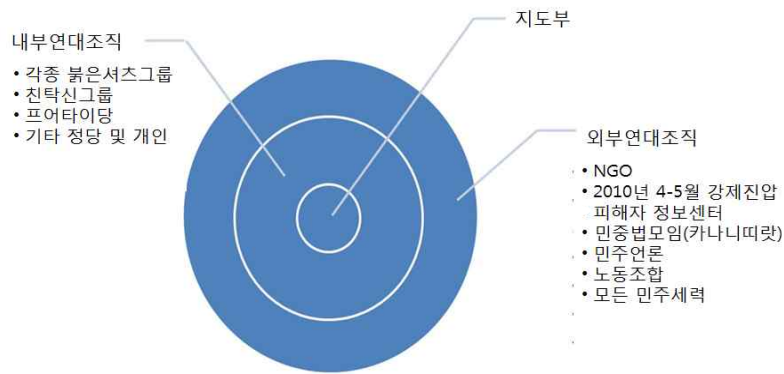
IV. 붉은셔츠의 조직: 다중심적 수평구조

붉은셔츠가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2006년 9월 19일 군부쿠데타였다. 쿠데타에 대한 대응은 시민사회 쪽과 정당 쪽에서 있었다. 우선 시민사회 쪽에서 조직된 주요 그룹으로는 <콘완사오(반독재토요회)>, <십까오간야(9월 19일)>, <피랍가오(비둘기)> 등이었다. 특히 ‘십까오간야’는 연구자, 학자들 중심의 조직이었고, <피랍가오>는 노동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후 이들 조직들은 <반쿠데타연대위원회(너빠꺼)>로 통합되었고, 이 연대조직은 <반독재민주주의연대회의(너빠처)>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너빠처로부터 수라차이가 이끄는 <댕싸얌(붉은싸얌)>, 솜웃이 이끄는 <이

18) 파숙 전 쯔라롱컨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탁신체제가 남긴 중요한 유산으로 높은 정치의식을 갖는 대중들로 구성된 정치사회와 기초의료보장제도의 도입과 같은 복지제도를 들었다. 그런데 보다 근원적으로 보자면 정치사회 형성의 계기는 1997년 신헌법 제정 이후 진행된 지방분권화였다고 언급하였다(면담일: 2012년 9월 10일). 지방분권화 효과는 위앙락 쯔라롱컨대 정치학부 교수도 강조하였다(면담일: 2013년 1월 7일).

십씨 미투나(6월 24일), <리야오싸이(좌선회)>, <카나니띠랏(민중법모임)>, <커빠띠(민주주의네트워크)> 등이 분화되어 나왔다.

<그림2>너빠쳐(UDD)의 연대활동



참고) *한겨레*(2012: 24).

이들 가운데에서도 땡싸얌, 이십씨미투나, 리야오싸이 등은 너빠쳐에 비해 급진적 그룹으로 분류한다. 너빠쳐가 공식적으로 군주제를 토대로 하는 헌정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이들 분화된 그룹들은 묵시적으로 반군주제-공화주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¹⁹⁾ 이러한 배경하에서 땡싸얌의 지도자인 수라차이, 이십씨미투나의 지도자 솜웃 등이 국왕모독죄로 수감되어 있고, 리야오싸이의 지도자 짜이 응파껌은 영국에, 땡싸얌 지도자 짜크라폼은 캄보디아에 각각 망명해 있다.

이들 붉은셔츠 조직들은 서로 간에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회합이나 소통채널은 없으나 인터넷이나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매개로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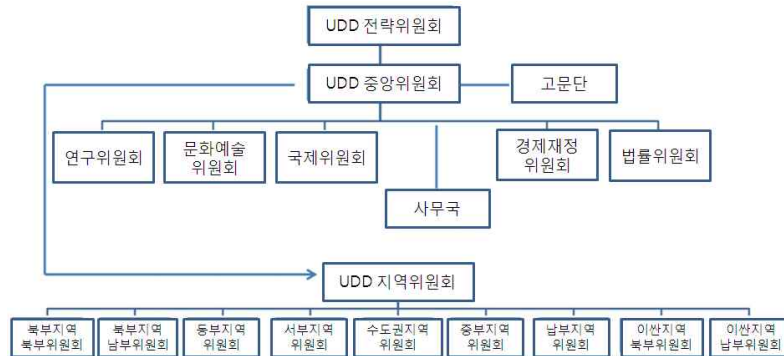
19) 왕당파(royalists)의 사전적 의미는 군주제의 유지나 군주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 정파이다. 반대어는 공화파(republican)이다. 영국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왕당파와 공화파의 대립은 왕과 의회의 대립으로 표현되었다(고원 2007: 190).

통하고 있다. 특히 너삐처를 제외한 소규모 조직들은 이렇다하게 정형화된 조직이라기보다는 무정형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붉은셔츠는 과거 공식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타이공산당(CPT)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들은 인맥이나 인터넷 공간, 대안 라디오를 통해 소통하고 사안별로 연대한다. 붉은셔츠 최대조직인 너삐처는 위성 TV 방송국 '아시아 업데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붉은셔츠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는 '근대화된 프라이'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붉은셔츠가 극빈층만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신형 중산층이나 도시화된 농민까지도 주력부대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친탁신계 정당 쪽에서는 대안언론인 PTV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이것이 군정에 의해 폐쇄되자 Truth Today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후 친탁신계 정당은 팔랑뿌라차춘당(PPP), 프어타이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선거를 통한 집권당의 지위를 양보하지 않았다. 물론 붉은셔츠의 최대 조직이고 정보통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너삐처(UDD)는 위 <그림2>에서 보듯이 친탁신계 프어타이 정당을 내부 연대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너삐처는 <2010년 4-5월 강제진압피해자 정보센터>, <카나니 띠랏> 등 시민단체 성향의 여러 조직과도 연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너삐처는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위원회의 경우 조직이 탄탄한 북부지역과 이싼(동북부)지역은 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하나씩 더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너빠처(UDD)의전국조직현황



참고) นปช.(2012: 16).

요컨대 최대조직인 너빠처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 붉은셔츠의 내부는 다분히 다중심적이며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붉은셔츠는 정당과 연관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혁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대 사회운동조직으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중앙집권적 위계구조가 아닌 다중심적 수평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탈근대적 사회운동조직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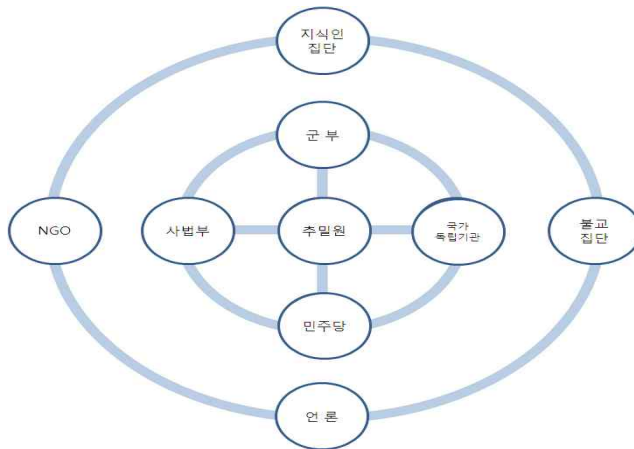
V. 붉은셔츠의 행동: 시민혁명 혹은 정치혁명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 붉은셔츠의 공동행동 목표는 귀족정 혹은 관료정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암맛따야티빠따이’(อำมาตยาธิปไตย)의 개혁이다. 암맛따야티빠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붉은셔츠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 ‘쌍마뜨라탄’(สองมาตรฐาน), 즉 이중잣

20) 마하싸라캄대학 솜차이 교수와의 인터뷰(면담일: 2012년 11월 16일).

대의 문제이다. 붉은셔츠는 특히 법의 불공정한 적용을 사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타이에서의 ‘뿔라간피왓’(ตุลาการภิวัตน์), 즉 ‘정치의 사법화’는 법의 이중잣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일부 붉은셔츠는 암맛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왕을 전면 에 내세워 이용하고 또 진흙탕 정치에 국왕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붉은셔츠는 국왕에 대한 불경은 오히려 노란셔츠가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림4> 붉은셔츠가 보는 암맛 네트워크



참고) 이 그림은 [Wahb\(2012: 5\)](#)를 변형한 것이다.

2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붉은셔츠는 엘리트집단의 특권문화에 대한 도전의 의미에서 프라이를 자처하였다. 이때의 엘리트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예의범절을 숙지하고 교양 있는, 즉 좋은 사람이란 의미의 ‘푸디’(ผู้ดี), 방콕 중산층을 지칭한다([นิธิ 2010: 33](#)). 반면 푸디의 반대 개념인 프라이는 교육을 제대로 못받고 예의범절을 모르

는 계급이다. 그렇지만 프라이를 자처한 붉은셔츠는 북부지역, 이싼(동북부) 지역 등 지방고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들의 지방어를 사용하면서 연대감을 만들어낸다. 또 이들은 난잡한 표현 대신에 직설적 표현을 선호한다. 이는 방콕 엘리트들에게는 교양이 없고 거칠게 들린다. 붉은셔츠는 자신들의 문화가 방콕 엘리트들의 문화와 대등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붉은셔츠와 대립하고 있는 노란셔츠가 효율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탐마피반’(ธรรมภิบาล), 즉 좋은 지배구조라는 개념을 선호하는 반면, 붉은셔츠는 평등의 관점에서 정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닛 2010: 151-155). 또한 이들은 반탁신 성향의 지식인들이 탁신의 포퓰리즘 정책을 ‘라뵘웁빠탐’(ระบบอุปถัมภ์), 즉 후원-수혜체제(patron-client system)로 보는 것에도 반대한다.²¹⁾ 이들이 보기에 탁신의 포퓰리즘은 오히려 진보적인 케인지안(Keynesian) 정책에 근접한다(วงศ์กรเลี้ยวซ้าย 2011: 30-31).

위의 <그림 4>는 붉은셔츠가 보는 암맛 네트워크이다. 암맛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왕실자문기구인 추밀원이 있다. 추밀원은 의회주의를 통한 지배 방식과 비의회주의를 통한 지배 방식 모두를 행사한다. 민주당은 전자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군부는 후자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민주화는 추밀원으로 하여금 민주당의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도록 하였으나 탁신의 타이락타이당의 등장과 함께 민주당의 정치기반이 크게 약화되면서 추밀원은 비의회주의를 통한 지배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다. 2006년 군부 쿠데타와 이후의 정치의 사법화도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포스트-탁신 시기에 반탁신-친왕실 성향의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독립기구들, NGO, 불교단체들의 법적, 도덕적 지지도 비의회주의적 지배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혁명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연속과 전제적이고 자의적인 지배

21) 탁신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박은홍(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를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권리에 입각한 근대적 정치제도를 형성해가는 정치혁명이었다(고원 2007: 220). 이러한 맥락에서 암맛따야티빠따이의 해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붉은셔츠 행동은 정치혁명이자 시민혁명이다.

1. 쌍마뜨라탄(이중잣대) 철폐 및 정치범 석방운동

붉은셔츠는 이중잣대를 통한 차별에 저항한다(Streckfuss 2012: 276-279). 사법부는 정부종합청사와 수완나폼 국제공항을 점거한 노란셔츠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지연하거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붉은셔츠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석 신청을 불허하고 법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등 차별적, 이중적 태도를 취해 왔다. 붉은셔츠는 이러한 이중잣대의 법집행에 반대하면서 그 희생양이 된 붉은셔츠 정치범들에 대한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잣대에 대한 반감은 타이 사회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부, 권력,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2. 헌법개정운동

붉은셔츠는 현재 타이의 법치국가가 아닌 것으로 본다. 2006년 9월 19일 쿠데타로 헌법은 폐기되었고, 심지어 이 쿠데타를 정당화해준 사법부가 2007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한 친탁신계 팔랑쁘라차 촌당을 해산시킨 예가 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군정하에서 인민의 동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통과된 2007년 신헌법은 폐기 내지는 개정 대상이다. 선출직이었던 상원의 절반을 임명적으로 돌린 것도 헌법이 개악된 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붉은셔츠에게 2007년 헌법은 암맛에 유리한 정치적 게임을 정당화한 제도이다(Stent 2012: 21). 붉은셔츠는 암맛 네트워크가 헌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타이의 정체는 명실상부한 입헌군주제가 아니라고 본다. 2006년 9월 19일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의 쿠데타 명분이 ‘국왕보호’에 있었고 탁신에게 군주제 전복혐의를 씌운 사례야말로 암맛 네트워크가 법치를 무시하는 단적인 예이다. 이들에게 탁신은 군주제 수호를 명분으로 일어난 1947년 쿠데타의 희생자가 된 뿌리디를 연상케 한다. 붉은셔츠는 2006년 쿠데타와 2007년 헌법의 부당성을 명확히 해두지 않을 경우 군주제 수호라는 이름하에 헌법을 폐기하는 쿠데타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집권 프어타이당은 의회 차원에서 개헌을 추진하려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개헌추진 중단 요구를 받고 헌법 개정애 앞서 국민투표를 행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려중이다. 반면 붉은셔츠의 최대조직인 너빠처는 프어타이당 주도로 의회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고 국민투표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탁신은 국민투표 수용을 피력하였다.²²⁾

3. 국왕모독죄 개정 혹은 폐지운동

2006년 쿠데타의 명분은 탁신정부의 부패와 왕실에 대한 불경이었다(สุภชัย 2008: 283). 국왕이 이 쿠데타를 승인함에 따라 국왕모독죄 위반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²³⁾ 또한 인터넷 공간을 통한 의견교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타인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사례를 차

22) 시민단체인 <The Mirror Foundation>, <완아딧씨맹>을 이끌고 있는 솜밧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이 가능하려면 유권자의 50%이상이 투표를 해야하고 투표자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2007년 신헌법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때 없었던 것으로 불공평하며 현실적으로도 승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탁신을 이해할 수 없는 대신 국민투표를 반대하고 의회를 통한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너빠처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면담일: 2013년 1월 11일).

23) 국왕모독죄로 명명되는 형법 112조에 따르면 “국왕,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협한 자는 3년에서 최고 15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어 컴퓨터범죄법이 신설되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공간에서 군주제에 대한 비난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붉은셔츠는 국왕모독죄야말로 암맛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국왕모독죄로 수감되어 옥사한 아꼴 사건도 국왕모독죄 폐단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한다. 원래 국왕모독죄는 형법상 최고 7년형이었는데 1976년 군부-왕실동맹에 의한 쿠데타 직후 최고 15년형으로 강화되었다. 국왕모독죄로 인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소규모의 붉은셔츠 조직들은 붉은셔츠 최대조직인 너삐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부 지식인들과 인권단체들은 국왕모독죄인 형법 112조로 인해 명망 있는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이 구속되는 현실에 비판적이다.²⁴⁾ 대표적인 인물이 현재 수감 중인 노동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솜웃이다. 그는 형법 112조 철폐를 요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5일 만에 체포되었다. 공식적인 혐의는 그가 편집 책임을 지고 있던 잡지에 국왕모독죄에 해당하는 기고문이 게재되었다는 것이다.²⁵⁾ 이외에도 탐마삿 대학 역사학과의 솜삿 교수가 형법 112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두하면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현재 국왕모독죄로 구속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탐마삿대 법과대 교수 7명을 중심으로 국왕모독죄의 형량을 대폭 줄이고 악용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형

24) 현재 국왕모독죄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총 6명이다. ① 다라나- 언론인으로 15년형을 선고 받음. ② 솜웃- 노동운동가, 사회운동가, 잡지 편집인. 11년형을 선고 받음. ③수라차이- 역사학자, 저술가. ④탄타웃- 붉은셔츠의 웹 마스터. ⑤완차이- 평범한 시민으로 수년전 유인물 배포혐의로 구속됨. ⑥유타폼- 최근 구속됨.

25) 문제가 된 기고문의 필자는 멩싸암의 지도자로 현재 캄보디아에 피신해 있는 짜크 라폼으로 알려져 있다. 솜웃은 2010년 4-5월에 방콕 랏차쁘라쑹 거리에서 있었던 붉은셔츠에 대한 아피셋 정부의 유혈진압이 있던 직후 정부가 제창한 뿌렁텅(화해)의 전제조건으로 정치범에 대한 전면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법 112조 개정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왕모독죄인 형법 112조가 국민의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냈다. 솜웃 등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법 112조는 국왕의 안위를 규정한 헌법 8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으로 타이 국민은 이 헌법 조항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4. 2010년 4-5월 랏차쁘라송 유혈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운동

붉은셔츠는 현 잉락정부가 추진하는 ‘쁘렁당’(국민화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없는 화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2010년 유혈진압 사태 희생자 쪽에서는 진상조사->사법절차->보상->사면이라는 4 단계가 뿌렁당에 이르는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2010년 4-5월에 있었던 랏차쁘라송 거리 유혈진압 이후 아피셋정부가 제안한 뿌렁당에 대해 프어타이당의 빨렛 뿌리슝은 뿌렁당의 전제조건으로 양자간 사죄, 양자간 폭력 사용 중단 선언, 군주제에 대한 충성 선언 등을 거론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주제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는 까닭은 아피셋정부가 붉은셔츠를 군주제를 거부하는 폭도로 규정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10년 4-5월 강제진압피해자 정보센터>는 2012년에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정의를 위한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5. <피탁싸얌> 반대 및 잉락정부 사수운동

“타이를 사수하자”라는 의미의 <피탁싸얌> 지도자이자 전 장성 출신인 분러는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강탈하고 있는 꼭두각시 정부를 전복해야 할 쿠데타가 일어날 시점”이라고 선동하면서 잉락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피타싸얌의 잉락정부 타도 운동의 명분은 세 가지이다. 현 정부가 군주제를 무시한다는 점, 탁신의 꼭두각시 정부라는 점, 부패한 정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항하여 최대 붉은셔츠 조직인 너빠처는 반(反) 피타싸얌-잉락정부 사수 운동을 지역조직 기반이 탄탄한 이싼(동북부)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 운동으로 확대해나갔다.

6. 정치교육운동

모든 붉은셔츠 조직은 무반쓰어맹(붉은셔츠촌) 구축, 강연조직, 가두집회, 회보발행, 대안언론운동, 웹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정치교육을 행하고 있다. 최대조직 너빠처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교육을 목표로 위성TV 방송국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²⁶⁾ 너빠처가 목표로 하는 정치교육의 내용은 2007년 헌법 폐기의 정당성과 쿠데타의 부당성을 알리고 암맛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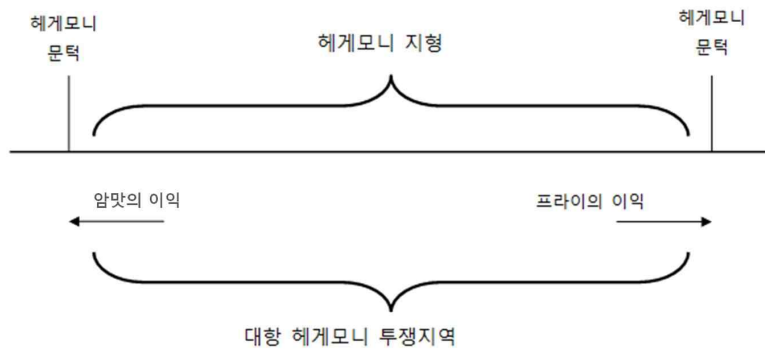
VI. 결론

포스트-택신 시대의 붉은셔츠의 대항 헤게모니의 형성과 성장은 타이 역사 속에서의 자유주의세력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타이에서는 그동안 네 번에 걸친 왕당과 쿠데타가 있었다. 1933년, 1947년, 1976년, 2006년이 이에 해당한다. 1933년 왕당과 쿠데타만이 실패했고 나머지 세번의 쿠데타는 성공했다. 여기에서 성공이라 함은 붉은셔츠에게는 암맛 이익의 유지

26) 너빠처가 운영하는 정치학교에 대한 지방주민들의 관심은 필자가 2012년 11월 15일 나콘파놈주 시리송크람에 있는 한 무반쓰어맹(붉은셔츠촌)을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

혹은 확대를 실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이른바 프라이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엘리트들이 대항 헤게모니 조직화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때의 엘리트들은 뿌리디와 그의 뒤를 이은 자유주의세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항 엘리트들이 암맛의 세계관에 대응할만한 개념과 전략이 취약했던 것이다.

<그림 5> 타이에서의 헤게모니-대항헤게모니 지형



참고) 이 그림은 최장집(1989: 31)의 그림시 헤게모니 도표를 변형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9월 쿠데타 이후 등장한 붉은셔츠의 이념, 조직, 행동은 달랐다. 위의 <그림5>에서 보자면 2006년 쿠데타는 탁신 시기에 붉은셔츠가 자처하는 프라이의 정치적 이익이 오른쪽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암맛의 대응이었다. 암맛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탁신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유주의세력의 이념을 대변하는 대항 엘리트의 역할을 해냈다.

붉은셔츠의 이념을 정치적 자유주의로 볼 수 있는 것은 쿠데타를 반대하고 헌정체제와 다수의 의사가 정치권력을 구성하는 선거민주주의를 원하기 때문이다. 붉은셔츠 가운데 공화주의를 기대하는 세

력은 극히 일부이며 대다수는 명실상부한 입헌군주제를 원한다. 그러기에 이들 붉은셔츠는 1932년 카나랏싸던(인민당)의 입헌혁명과 1933년과 1947년에 있었던 반(反) 빠리디 왕당파의 쿠데타에 주목한다. 군부-왕실 동맹 즉, 혼종적 암맛의 대표적인 희생자였던 빠리디와 1976년 10월 6일 이른바 흑뿔라 사태의 희생자였던 콘드언플라(10월세대)의 이념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를 오갔다면 붉은셔츠의 이념과 행동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붉은셔츠는 수직적으로는 탄탄한 대중조직을 토대로 지역조직과 중앙 지도부 양자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추구하며, 수평적으로는 최대 붉은셔츠 조직인 너빠처(UDD)를 비롯해 다양한 붉은셔츠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안별로 연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왕모독죄로 20년형을 받았다가 지병으로 옥사한 아짱 추도식의 경우 다양한 붉은셔츠 조직들의 연대하에서 치루어졌다.

세 번째로 붉은셔츠는 행동상에서 쿠데타 반대, 법치실현, 민선정부 사수, 국왕모독죄 개정 등과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이들의 투쟁은 암맛의 이중잣대, 문화차별에 대한 문화-이데올로기 투쟁의 성격을 갖는 시민혁명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들이 프라이계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암맛의 온정주의(patronage), 즉 ‘웁빠탐’(อุปถัมภ์)을 넘어서려는 권리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정치혁명이기도 하다. 붉은셔츠 조직화의 동기가 된 탁신이 그의 의도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중들에게 높은 정치의식을 부여한 셈이다. 1970년대의 타이공산당(CPT)이 정치의식을 위로부터 주입시키려고 하였다면 붉은셔츠의 경우 자율성을 갖고 있는 여러 기초 대중조직들이 스스로 권리의식과 정치의식을 축적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화적 토대를 축적하고 있다. 붉은셔츠는 암맛의 온정주의에 기대는 전통적 프라이가 아닌 인정투쟁을 벌이면서 시민혁명 혹은 정치혁명 차

원에서 대항 헤게모니를 조직하고 있는 근대화된 프라이인 것이다.

다시 말해 위의 <그림5>에서 2010년 4-5월의 붉은셔츠의 대대적인 저항은 힘이 왼쪽으로 밀리고 있다고 판단한 프라이의 방어적 대응이었다. 2010년 4-5월 투쟁은 혼종적 암맛이 근대화된 프라이의 축적된 비판적 정치의식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상식의 세계와 윤리 패러다임을 고수할 경우, 다시 말해 수동혁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폭력적 양상의 시민혁명 혹은 정치혁명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것은 곧 암맛 헤게모니 균열의 전면화에 따른 국면적 위기의 유기적 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이사회는 포스트-푸미폰 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1946년 ‘승계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trauma) 속에서 헤게모니 지형과 대항 헤게모니 지형간의 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보이지 않게 혹은 공공연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제어: 붉은셔츠, 혼종적 암맛, 근대화된 프라이, 헤게모니, 대항 헤게모니

〈참고문헌〉

- 고 원. 2007. “시민혁명과 근대민주주의의 탄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민주주의 강의 I: 역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홍구. 2010. “푸미폰 국왕의 정치개입 요인 분석.” 『동남아연구』 19(2).
- 박은홍. 2001. “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1(2).
- _____. 2007. “다시 ‘초대된’ 타이의 군부 쿠데타, 그리고 뻘렘.” 『동

- 아시아 브리프』 2(2).
- _____. 2012. “포퓰리즘의 아시아적 변형: 탁시노크라시(Thaksinocracy)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모델의 적용.” 『경제와사회』 제93호
- 이내영. 1986.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이론.” 김학노 외. 『국가 계급 사회운동』. 한울.
- 이병도. 2000. “태국정당정치의 변동과 제도화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 이현미. 1986. “지식인과 헤게모니.” 김학노 외. 『국가 계급 사회운동』. 한울.
- 조흥국. 2007. 『태국: 불교와 국왕의 나라』. 소나무.
-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 차상호. 1995. 『태국현대정치의 이해』. 한국외대출판부.
- 최장집. 1989.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까치.
- นิธิ เอียวศรีวงศ์. 2010. *การเมืองของเสื้อแดง*. กรุงเทพฯ: สำนักพิมพ์โอเพ่นบุ๊กส์.
- นปช. 2012. *เอกสารประกอบการจัดศึกษาของผู้ปฏิบัติการ นปช. แดง ทั้งแผ่นดิน พ.ศ. 2555*.
- องค์กรเลี้ยวซ้าย. 2011. *รัฐสวัสดิการและ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 แนวทางของชาวเสื้อแดงเพื่อขยาย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 สร้างความเป็นธรรม และศักดิ์ศรีของคนจน*.
- อรุณ แสงสุวรรณ. 2012. *เบื้องหลังเหตุการณ์ 6 ตุลา. พิมพ์ครั้งที่ 2*. กรุงเทพฯ: สำนักพิมพ์อรุณวิทยา.
- สุธาชัย ยิ้มประเสริฐ. 2007. *แผนชิงชาติไทย. พิมพ์ครั้งที่ 2*. กรุงเทพฯ : 6 ตุลารำลึก.
- สุธาชัย ยิ้มประเสริฐ. 2008. *สายธาร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ฯ : พี.เพรส.

- ชัยธวัช ตลาธน. บก. 2012. *ความจริงเพื่อความยุติธรรม : เหตุการณ์และ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การสลายการชุมนุม เมษา-พฤษภา 53*. พิมพ์ครั้งที่ 2, กรุงเทพฯ: ศูนย์ข้อมูลประชาชนผู้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การสลายการชุมนุมกรณี เม.ย.-พ.ค. 53 (ศปช.).
- Alagappa, Muthiah. 2004.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An Analytical Framework." Muthiah Alagappa(ed.)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Askew, Marc. 2012. "The Ineffable Rightness of Conspiracy." Michael J. Montesano et al.(eds.), *Bangkok May 2010: Perspectives on a Divided Thailand*, Chiang Mai: Sikworm Books.
- Benbourenane, Ornanong Noi Wong. 2012. *Political Integration Policies of the Thai Government Toward the Ethnic Malay-Muslims of Southernmost Thailand(1973-2000)*. Bangkok: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 Ishii, Yoneo. 1986. *Sangha, State and Society: Thai Buddhism in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Ji Ungpakorn. 2007. *A Coup for the Rich: Thailand's Political Crisis*. Bangkok: Workers Democracy Publishing.
- _____. 2010. *Thailand's Crisis and the Fight for Democracy*. Bangkok: WDPRESS.
- Kanokrat Lertchoosakul. 2012. "The Rise of the Octobrists." Ph. D. Dissert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Kobkua Suwannatbat. 2003. *Kings, Country and Constitu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ontesano, Michael J., Pavin Chachavalpongpun and Aekapol Chongvilaivan(eds.) 2012. *Bangkok May 2010: Perspectives on a Divided Thailand*. Singapore: ISEAS.
- Naruemon Thabchmpun and Duncan McCargo. 2011. "Urbanized Villagers in the 2010 Thai Redshirt Protests: Not Just Poor Farmers?." *Asian Survey* 51(6).
- Nostitz, Nick. 2011. "The Red Shirts: From Anti-Coup Protesters to Social Mass Movement." unpublished paper.
- Pasuk Phongpaichit and Chris Baker. 1995. *Thailand: Economy an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A History of Thailand*(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2. "Thailand in Trouble." Michael J. Montesano et al.(eds.) Pavin Chachavalpongpun, and Aekapol Chongvilaivan eds. *Bangkok May 2010: Perspectives on a Divided Thailand*. Singapore: ISEAS.
- Pravit Rojanaphruk and Jiranan Hanthamrongwit. 2010. "Distorted Mirror and Lamp: The Politicization of the Thai Media in the Post-Thaksin Era." Marc Askew(ed.) *Legitimacy Crisis in Thailand*. Chaing Mai: Silkworm Books.
- Ramasamy, P. 2004. "Civil Society in Malaysia." Lee Hock Guan(ed.) *Civil Society in Southreast Asia*. Singapore: ISEAS.
- Schmidt, Johannes Dragsbaek. 2011. "The Red Shirt Rebellion in Thailand." Hee-Yeon Cho and Eunhong Park et al.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in Asia*.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Somchai Phatharathananunth. 2011. "The Politics of Postpeasant Society: The Emergence of the Rural Red Shirts in Northeast Thailand." a paper presented at the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2011 (19-21 April 2011).

Stent, James. 2012. "Thoughts on Thailand's Turmoil." Michael J. Montesano et al.(eds.) *Bangkok May 2010: Perspectives on a Divided Thailand*. Singapore: ISEAS.

Streckfuss, David. 2012. "The Strategy of the UDD on 'Double Standards'." Michael J. Montesano et al.(eds.) *Bangkok May 2010: Perspectives on a Divided Thailand*. Singapore: ISEAS.

Terwiel, B. J. 2005. *Thailand's Political History*. Bangkok: Riverbooks.

Thawatt Mokarapong. 1972. *History of the Thai Revolution: A Study in Political Behaviour*. Bangkok: Thai Watana Panich Co. Ltd.

Walker, Andrew. 2010. *Thailand's Political Peasants: Power in the Modern Rural Econom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면담

나루몬(쫄라롱건대 정치학부 교수), 면담일: 2012년 8월 27일.

누알라너이(쫄라롱건대 경제학부 교수), 면담일: 2012년 8월 24일.

쁘라윳(The Nation 기자), 면담일: 2012년 9월 10일.

쁘라팻(쫄라롱건대 정치학부 교수), 면담일: 2012년 9월 12일.

솜빳(시민운동 지도자), 면담일: 2013년 1월 11일.

- 숨차이(마하싸라캄대 교수), 면담일: 2012년 11월 16일.
수타차이(쫄라롱껐대 역사학과 교수), 면담일: 2012년 8월 29일.
수타차이(쫄라롱껐대 역사학과 교수), 면담일: 2012년 1월 10일.
수다(쫄라롱껐대 언어학부 교수), 면담일: 2012년 8월 30일.
완(전직 법조인, 현 쾀꺼 지역사회라디오 진행자), 면담일: 2012년 11월 17일.
우크릿(쫄라롱껐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면담일: 2012년 8월 31일.
위라췌(탐마췌대 법과대 교수, 카나니띠랏 회원), 면담일: 2012년 9월 14일.
웁(프어타이당 국회의원, 너빠처 운영위원), 면담일: 2012년 9월 13일.
위앙락(쫄라롱껐대 정치학부 교수), 면담일: 2013년 1월 7일.
익명의 나콤파눔 무반쓰어땡(붉은셔츠촌) 지도자, 면담일: 2012년 11월 15일.
익명의 마하싸라캄 지역사회 라디오 진행자, 면담일: 2012년 11월 17일.
익명의 쫄라롱껐대 '민중을 생각하는 쫄라공동체' 재학생 활동가, 면담일: 2012년 9월 13일.
익명의 췌뽀라간 지역사회 라디오 진행자, 면담일: 2012년 9월 16일.
익명의 췌뽀라간 지역활동가, 면담일: 2012년 9월 13일.
익명의 땡싸얌 활동가, 면담일: 2012년 9월 12일.
짜투런(전 부수상, 전 타이락타이당 총재대행), 면담일: 2012년 9월 3일.
짤란(전 너빠처 운영위원), 면담일: 2012년 8월 31일.
짤란(전 너빠처 운영위원, 현 내무차관 자문위원), 면담일: 2013년 1월 8일.
췌(국왕모독죄 수감자 가족모임 회원), 면담일: 2013년 1월 5일.
캄(전직교수, 이싼지역 활동가), 면담일: 2012년 11월 15일.
티다(너빠처 대표), 면담일: 2012년 9월 11일.
파숙(전 쫄라롱껐대 경제학부 교수), 면담일: 2012년 9월 10일.

폰(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면담일: 2012년 9월 10일.

피칫(탐마삿대 경제학부 교수), 면담일: 2012년 9월7일.

David Streckfuss(미국인 타이 역사학자), 면담일: 2012년 9월 2일.

Nick Nostits(<Red vs. Yellow> 저자, 독일인 자유기고가), 면담일:
2012년 8월 30일.

(2013. 01. 17 투고; 2013. 01. 27 심사; 2013. 2. 13 게재확정)

<Abstract>

The Red-Shirted Groups' Ideology, Organization, and Action in the Post-Thaksin Era

PARK Eunhong
(Sungkonghoe University)

The Red shirts came to attract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April to May in 2010 by successfully organizing explosive popular demonstrations. The momentum was the military coup on September 9, 2006. The Red color was chosen amid movements against the new constitution instituted under the military junta. In discourse struggles, the Red shirts compared their resistance against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lead by Abhisit Vejjajiva to that of *phrai* (commoner or serfs) against *ammart* (aristocrats or bureaucrats) under the pre-modern reign of *sakdina*. The Red shirts strongly accused Prem Tinsulanonda, the chief of the Privy Council, of being a mastermind of 2006 military coup, who symbolically represents the cohesion between the palace and the military. It has constituted an unprecedented defiance towards national taboo where the trinity of Nation, Religion, and King has been consecrated.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Red Shirts' ideology,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in terms of the modernized *phrai's* struggles for expanding counter-hegemony. While Antonio Gramsci focused on

why socialist revolution had failed to materialize in capitalist Western Europe, I pay attention to why political liberalism has failed to wash away pre-modernity and take root in capitalist Thailand, applying the Gramscian concept of hegemony by contrasting ‘hybrid *ammart*’ with ‘modernized *phrai*’.

Key words: Red shirts, hybrid *ammart*, modernized *phrai*, hegemony, counter-hegemony